

## 권순관

### 행위의 발견

박평중

초기작 《Wander about the Extra Territory》와 《Isolated from the Territory》에서부터 최근작 《Configurations》, 《A Practice of Behavior》에 이르기까지 권순관은 공간과 인간 행위의 관계에 대한 관찰과 탐구를 계속해 왔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공간이 인간 행위에 미치는 영향, 혹은 행위가 특정 공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주목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인간의 행위에는 우선 생물학적 본능이나 유기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스런 몸의 반응이 있다. 추우면 움츠러들고, 가려우면 긁고, 피곤하면 눕고, 다리가 아프면 앉고,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이 나오는 따위의 동작이 그것이다.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지는 모든 다채로운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행위는 의식의 지배를 받아, 때로는 본능에 충실하여, 때로는 본능에 역행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식적 행위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관심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향해 걷고, 필요한 물건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동작들은 대개 의식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들이다. 의식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행위라 하겠다. 인간의 행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때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도 많다. 예컨대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걷는 행위는 몸의 본능에 따른 것인가, 의식의 통제에 따른 것인가. 또는 “나도 모르게 했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이 되는 행위는 과연 나의 행위인가 아닌가. 나아가 국기 앞에서 경례를 하거나, 연장자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취하는 행위처럼 사회적 관습이 우리에게 심어 준 규격화된 행위들은 의식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대체로 행위는 의식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큰 무리 없이 통념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자의 생각을 나무라고, 잘못된 생각을 교화시키면 행위도 고칠 수 있다고 여긴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행위는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행위를 꼼꼼히 관찰하고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헤아려 그것을 행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각각의 행위를 발생시킨 근원적인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간단한 행위를 만들어 내는 신체 각 부위가 단일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는 경우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밥 한 공기를 비우는 동안에도 우리는 해찰을 하고, 때로는 습관에 따라 다리를 꼬거나 떨기도 하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 않은가. 행위는 정신의 산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신체성만을 띠는 행위가 있는 셈이다. 그것이 행위의 중립성을 낳는다.

아마도 행위의 신체성이 잘 드러나는 경우는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의식의 지향성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공간에 적응하여 취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겠다. 자연으로서의 공간을 제외한 인공의 공간, 즉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낸 공간은 공간 자체의 목적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학교와 병원, 공원, 아파트, 백화점, 관공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구축된 공간이 그것으로 거기에는 행동의 규범이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특질이 그 공간 속에서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간의 목적성이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는 행위가 생겨나는 것이다. 공간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주체는 공간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개인은 공간의 규범에 자신의 행위를 맞춘다. 그것은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작업마다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권순관이 주목하는 문제는 이처럼 공간의 규범을 따르는 행위와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의 미시적인 차이를 들추어내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를 통해 그 공간이 인간에게 적합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 혹은 반대로 그 공간 속에서의 행위가 가공된 것은 아닌지를, 요컨대 공간의 정당성과 행위의 정당성을 함께 묻고 있는 셈이다.

## 해찰과 인식의 사각지대

《Wander about the Extra Territory》는 특정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현실에서 그 공간의 규범을 따르고 있지 않은 일탈로서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그 행위는 공간의 규범과 맞지 않기에 어떤 점에서는 공간의 경계를 서성거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의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위이기도 하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범과 동일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영역'의 생리이다. 영역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영역에 들어오려면 자신의 고유한 행동 양식을 버리고 그 영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영역 내에서의 행위이다. 영역 내에서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영역'들은 폐쇄적이다. 그곳에서만 하는 말이 있고, 그곳에서만 하는 행위가 있고,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는 장소, 그곳이 '영역'이다.

한강 고수부지의 야외 풀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행위의 양식이 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기 위한 공간에서 모닥불을 쬐 수는 없는 것이다. 공간의 목적성에 크게 역행하지 않더라도 이 공간을 '영역'으로 만드는 규범은 많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비치파라솔 아래 앉아 있거나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따위의 행위가 공간의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에 따라서만 행동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인간은 늘 해찰한다. '빨강색 버스를 바라보는 남자'는 어째서 야외 풀장에서 쓸데없이 '영역'의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가. 그 남자가 북적거리는 군중들 사이의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렵지만 작가에게 의미 있는 행위는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규격화된 행위로 가득 찬 공간의 어딘가에서 단청을 피우고 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공간의 규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행위이기도 하다.

‘물총을 쏘며 달려가는 여자’ 역시 ‘영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는 마찬가지이다. 한적한 한강 공원에 일렬로 가지런히 놓인 텐트 사이로 뛰어나오는 여자의 행위는 난데없지만 그 또한 하나의 행위이다. ‘넘어져서 한참을 앉아 있는 남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쌍둥이’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된다. 아마도 작가는 행위의 구체성이 의미와 섞여 중립성을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각의 행위를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구석에 배치한 듯하다. 빙판 위에 앉아 있는 남자의 모습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는 쌍둥이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잡아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행위는 인식의 저편으로 물러나 중립적인 상태로 머물게 된다.

### 중립적 행위의 (무)의미

이러한 전략은 《Isolated from the Territory》에 이르러 한층 강화된다. 복잡하게 밀집해 있는 주택들 틈에서 ‘선토텐하는 뚱뚱한 여자와 고추를 널다 이를 훑쳐보는 빨간 장갑 낀 남자’를 찾아내기란 만만치 않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옥상 위에서 ‘직장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에 힘없이 귀 기울이는 점원 여자’ 또한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고층 건물의 유리창 사이에서 ‘전화통화 후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줄무늬 티셔츠의 남자’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실상 이들의 행위와 공간의 질서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은 공간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공간 속에서 행해지되 공간과 무관한 행위, 나아가 의미와 얽히지 않고 인식의 수면 위로도 떠오르지 않는 발생 이전의 사태로서의 행위, 그것이 중립적 행위이다. 그 행위는 공간의 질서와 무관한, 요컨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의미 이전의 행위이자 의미와 무관한 행위이며, 어떠한 콘텍스트도 갖지 않는 고립된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은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중립적 사태에 속한다. 작가가 제목을 통해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알아차리기 힘든 이 사태들에 어떤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예컨대 고층 건물의 수많은 창문들 사이에 묻혀 보이지 않는 ‘회의가 끝난 후 상사와 신경전을 벌이는 남자’의 행위를 무어라 불러야 할 것인가. 지각되지 않은 현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의 사태이지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곤혹스런 문제가 제기된다.

행위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 맺음에 대한, 혹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반응 양태이다. 사물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 모든 감각 활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와의 관계 맺음이라면 행위는 보다 능동적인 반응에 속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는 인간에게 주어진다. 세계가 현실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각의 그물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각되지 않은 사태란 현실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비현실이나 허구와 구분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다. 아마도 작가는 지각의 바깥에 위치하나 자명하게 발생한 이 사각지대 속의 행위에 현실의 지위를

복원시켜 주고자 애써 정교한 제목을 붙여 가며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소한 행위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 없이는 '회사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무심코 크레인에 매달린 적재물을 바라보는 남자'나 '맨홀 위에서 사진 찍는 남자를 바라보는 빨간 핸드백을 든 여자'는 주의를 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자격조차 갖지 못한다.

이러한 전략은 《Purifying the Behavior in Voluptuous Structure》에서도 계속된다. 다만 차이는 《Isolated from the Territory》가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행위들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행위만을 선택하여 행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데 비해 이 작업에서는 모든 다른 행위를 배제하고 단일한 하나의 행위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가 노리는 바는 대체로 자명하다. 공간과 행위의 관계에서 점차 행위 자체로 관심이 옮겨 가는 것이다. 실제로 《Isolated from the Territory》에서는 수많은 행위들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탓에 시선을 분산시켜 행위의 중요성을 축소시켜 버리는 측면이 있었다. 요컨대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본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한편 《Purifying the Behavior in Voluptuous Structure》는 비록 행위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간에 비해 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와 섞이지 않는 덕분에 행위의 사소함이 지닌 독립적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얻어 내고 있다. 유령 도시와도 같아 보이는 거대한 물질 덩어리의 도시 속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사태는 하나의 행위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행위들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각되는 이러한 현실을 작가는 행위를 순화시킨다는 표현으로 정리했다. 다른 행위들을 배제하고 단일한 하나의 행위만을 순도 높게 정화시켜 낸 덕분에 우리는 거대한 건물들과 도로 주변에서 꿈지락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적 쉽게 분간해 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소하고 하찮은 행위가 의미 있는 현실로 둔갑한다.

## 행위의 무고함과 우둔함

《Isolated from the Territory》와 《Purifying the Behavior in Voluptuous Structure》가 행위와 현재적 공간의 관계에 주목한 작업이라면 《Configured in Accumulative Space》는 역사적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행위의 낯설음을 강조한 작업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평범해 보이는 행위를 퍼포먼스의 형태로 실행함으로써 역으로 역사적 기억이 묻어 있는 공간을 낯설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행위가 펼쳐지는 장소는 1980년 5월 광주의 배경이 되는 금남로와 도청을 비롯하여 5.18 기념관과 같은 역사적 공간이다. 그 공간은 과거의 상처를 지워 버리고 현재적 공간으로만 남아 있다. 그렇게 된 까닭은 공간의 물리적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현재적 모습 때문이다. 작가는 현재적 공간의 이러한 변모를 보여 주기 위해 일상과 낯설음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행위를 등장시킨다. 금남로의 한복판에서 작가가 연출해 낸 장면은 일상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도로 중앙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전면에는 오토바이에 치인 듯한 사람이 부축을 받은 채 걸어 나가고 있다. 지나가던 차량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 때문에 멈추어 있고 행인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느라 발걸음을 멈춘 채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돌발 상황은 어디에서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태이다. '늙은 남자의 맥살을 잡고 화를 내는 남자'가 소란 피우는 모습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팔짱을 낀 채 방관자의 자세로 지켜보고 있고 구석의 어린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스크림을 활아먹고 있다. 그것이 역사적 공간인 금남로의 현재 모습이다. 도청 앞 '분수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여자'가 1980년 5월의 도청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녀가 5.18 광주 희생자의 유족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현재적 행위가 비극을 간직한 기억 저편의 역사적 공간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아무 것도 없다. 행위는 본래 독립적이기에 무고하지만 공간의 기억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는 점에서 어리석다. 5.18 기념재단의 광장 앞에서 펼쳐지는 합창단의 행위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기이한가. 마찬가지로 잔인한 폭력이 휩쓸고 지나갔을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줄 맞추어 나아가는 남자'들의 모습은 이 장소에 묻어 있는 역사적 기억을 희극으로 변질시킨다. 장소는 기억을 환기시키는 법이어서 모습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장소의 힘이다. 작가가 낯선 행위를 등장시켜 복원해 내고자 하는 것도 기념비적 장소가 갖고 있는 이 힘에 의지해서일 것이다. 그 힘은 기억에서, 요컨대 역사에서 나온다. 지금은 갈대숲으로 뒤덮인 어느 하천의 주변에도 하찮은 역사는 서려 있다. 소년의 손에 이끌려 수풀 어디론가 끌려가는 소녀의 모습과 광활한 수풀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풀밭에 쓰러져 있는 여자'의 모습은 어딘가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를 음험한 역사에 대한 메타포로 읽힌다.

## 몸의 기억과 정신의 기억

《A Surface of Status》에 와서 작가의 관심은 본격적으로 행위에 집중된다. 공간 속에서의 행위라는 본래의 문제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행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이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목적성을 갖는 의지적 행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런 일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나 현관에 서 있는 남자,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침대에 누워 있는 남녀의 모습은 '행위'보다는 '자세'에 가깝다. 자세는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몸의 태도, 요컨대 무의지적 행위에 가깝다. 그것은 오랫동안 공간에 적응해 오면서 몸에 밴 습관처럼 정신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하는 행위, 즉 신체의 기억 행위이다. 그들의 자세가 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면 작가의 구상에 따라 취해진 행위라는 점에서만 그렇다. 다시 말해 그들은 몸에 밴 자세를 의식적인 행위처럼 드러낸다. 여기에서 몸과 정신의 혼선이 생긴다. 신체성만 갖는 행위가 정신의 지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와인 잔을 든 남자'에서 스냅을 가장하여 구성해 낸 왼쪽 여인의 자세는 부자연스럽다. 아무래도 몸의 기억과 정신의 기억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한 자세는 몸의 기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현관에 서 있는 남자'나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모습에서 부자연스러움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로는 신체성만 갖는 자세에도 어색함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이처럼 행위 속에서 인위적으로 자연스러움을 구축해 내는 작업은 'The Face' 연작에서도 계속된다. 사람들의 얼굴만을 동일한 각도와 동일한 조명, 동일한 배경 하에서 촬영하여 규격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이 작업 역시 가공해 낸 자연스러움과 어색함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얼굴 표정도 일종의 행위이다. 행위가 몸의 근육 운동이 야기하는 운동과 정지의 반복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표정 또한 일반적인 몸의 행위처럼 생물학적 본능에 따른 근육 운동으로 나타나거나 감각 활동, 혹은 의지의 작용으로 인한 근육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어떤 점에서는 신체의 행위보다 의지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행위가 표정이다. 작가는 인물들에게 개인의 감정이나 의지를 배제하고 일률적인 표정을 요구함으로써 표정의 신체성만을 강조하려 한 듯하다. 그 결과 인물들의 얼굴은 무표정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무표정도 표정이다. 마찬가지로 몸의 기억 또한 기억이다. 그런 점에서 《A Surface of Status》는 몸과 정신의 이분법에 관한 오랜 사유의 전통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다.

## 공간 바깥의 동작

《Configurations》에 와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좀 더 멀리 나아간다. 구체적인 목적성에 따르는 행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의 정확성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작가는 숲 속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공사장의 일꾼들, 승마를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를 재연하여 몸에 익숙한 자세가 인위적으로 연출되었을 때도 몸의 기억에 부합하여 표출되는지를 묻고 있다. 《Configurations》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에 익숙해 있어 작가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하더라도 그 행위에 낯설지 않아야 마땅하다. 몸에 밴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세에서는 어색함과 낯섦, 꾸며낸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미세하게 감지된다. 작가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인공조명을 사용하고 색조에도 미세한 변화를 주었다. 또한 낮선 상황 속에 인물들을 배치하여 그들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인물들 각자의 공간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어 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서로 다른 공간 속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SN 6-139'에서 숲 속을 산책하고 있는 두 소녀와 뒤편에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 우측 전면에 무릎을 굽힌 채 가죽 가방을 든 여자는 각자 다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동일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두 소녀의 모습은 얼굴 색조의 변화와 뒤편에서 비치는 조명 탓에 마네킹처럼 보이기도 하며 나아가 괴기스런 느낌마저 자아낸다.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해머와 굴착기 등 다양한 작업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전문 일꾼들의 자세는 공사판을 모르는 일반인의 모습에 가깝다. 무성한 수풀을 헤집고 여자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를 향해 가는 남자의 모습과 뒤편에서

자전거를 끌고 서 있는 중년 부부의 모습 사이에서 어떤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행위, 혹은 자세는 그 자체로서 평범한 현실의 모습일지 모르나 상황은 낯설기 그지없다. 《A Practice of Behavior》에서 이제 작가는 공간을 무시하고 행위 자체만을 다룬다.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행위보다 순수하게 행위에만 주목하는 셈이다. '95-Gestures'가 보여 주듯 도로 위에서 각자의 행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간은 의미가 없다. 그들의 자세는 공간과 무관하여 무의미한 동작이라 할 만하다. 한편 특정 공간 속에서의 동작만을 채집해 낸 또 다른 작품들은 오직 그 공간 속에서만 표출되는 동작의 사례들을 모아서 보여 주고 있다. 'Table in Library'의 경우처럼 도서관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이나 'Gestures in Swimming Pool'에서처럼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동작을 보여 주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렇다면 동작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야 하는가. 공간을 배제하고 동작만을 추출해 낸 'Gestures in Subway'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동작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항변한다. 그들 중에는 패션 모델의 자세를 취한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의 자세도 있다. 마찬가지로 'Gestures in Football Field'에서처럼 축구공을 사이에 두고 어색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사람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뒤편 사람들의 동작은 축구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Gestures in Sermon hall'은 이 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원불교 교당에서 목자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장이 섞여 있어 그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모습이 못 된다. 그러한 동작은 단지 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Gestures in Gallery'가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갤러리의 한복판에서 경비원들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자신의 공간에서 벗어난 동작이 얼마나 코믹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명료한 예이다.

행위와 동작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권순관의 작업은 행위와 동작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 인식을 구체적인 지식으로 축적시켜 온 사진의 기술記述을 비켜 간다. 현실에 대한 전통적인 사진의 기술 방식은 행위의 자발성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자발적인 행위만이 행위로서의 지위를 갖고 기술될 자격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어색한 행위도 행위이고, 가공된 행위도 행위이며, 표정도 행위이다. 나아가 신체성만을 갖는 행위도 있으며 가치와 무관한 중립적인 행위도 있다. 작가가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때로는 공간 속에서, 때로는 공간에서 분리시켜 제시함으로써 행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대관절 행위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행위는 비로소 발견되었다.

글쓴이 박평중은 미학을 전공한 사진 비평가로 작가와의 상호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사진에 관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사진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는 한편 이미지에 대한 기초 이론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